조국통일 3대헌장

오늘 우리 민중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위대한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순간까지 불면불휴의 노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어 우리 민족에게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고 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조국통일의 대강인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영도해 오셨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었다.

조국통일 3대헌장에는 위대한 주석님의 숭고한 조국통일사상과 방침이 전일적인 체계로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위업에서 견지해야 할 가장 올바른 원칙과 방도, 지도적 지침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주석님께서 일찍부터 무르익혀 오신 통일의 근본원칙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72년 5월3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조국통일의 3대원칙으로 정립하여 천명하시었다.

이리하여 그해 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공식발표되었다.

남과 북이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함으로써 조국통일 3대원칙은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되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반도의 정세가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던 때인 1993년 4월6일 몸소 구상하시고 집필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발표하시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이념적 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창립을 총적 목표로 규정하고 이념적 기초로 내세우고 있다. 공존, 공영, 공리는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않는 것,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남과 북의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키며 온 민족이 통일을 위해 협조하고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밝혀주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실현방도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80년 10월10일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었다.

이 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과 북이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룩할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 방안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고심어린 탐구와 정력적인 사색을 거듭하시며 무르익히신 원대한 구상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뚜렷한 목표와 방향,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계속 힘차게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자주통일의 억센 기둥, 불멸의 지도적 지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과 그 구현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채옥 - 구국전선 주체91, 7월 1일

조국통일은 이런 원칙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발표 30돌을 뜻깊게 맞이한다.

1972년 7월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해 오신 자주적 평화통일노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격변하는 정세흐름을 깊이 통찰하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폭넓은 남북협상방침을 제시하시어 남북사이의 접촉과 대화의 길을 열어놓으시었다.

그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골자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내외에 엄숙히 선포되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과 남북관계발전에서 획기적 사변이었으며 그를 계기로 민족의 통일기운은 비상히 높아졌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밝힌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6.15남북공동성명도 철저히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민족공동의 신성한 의무이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30년 세월이 흐르도록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나 새 세기의 가까운 몇해안에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남과 북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는 기본의 기본으로 된다.

그러기에 6.15공동선언에서도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제일 첫자리에 놓았다.

자주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는 한 절대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한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6.15공동선언대로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제도통일론≫이나 ≪흡수통일론≫은 민족반역적인 영구분열론이다.

우리는 제도통일을 운운하는 호전적인 반통일분자들을 고립배격하고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확고한 담보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대로에서 하나로 뭉쳐야 한다.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조국통일 3대원칙이 있어 승리는 확정적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를 꺾을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는 6.15남북공동선언관철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더욱 앞당겨야 할 것이다.

노선일 / 구국전선 주체91, 7월 1일

위대한 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주체37, 1948)

우리 나라 속담에 병든 자식 탓하거나 자식 차별하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의 품이 한없이 넓고 *** 며 따뜻함을 이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걱정하는 영도자는 민족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두를 품에 안아 올바른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줍니다. 민중은 바로 그런 영도자를 신뢰하고 그런 분에게 운명을 맡기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 29돌을 맞으며 우리 민중이 주석님을 잊지 못해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는 것은 그분께서 넓은 도량과 위대한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모두 한품에 안아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세기여에 걸치는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 이념과 정견의 차이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막대한 지장과 저해를 주었고 지금도 의연히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 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실현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셨고 그 길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발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도 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이 낳은 고귀한 결실인 겁니다.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일수록 인간의 장점을 더 많이 찾아낸다고 프랑스철학자 뷸레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결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흠집을 꼬집기는 쉬어도 좋은 점을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파쇼통치의 환멸을 느끼고 해외에 망명한 최덕신, 최홍희 등 동포들의 경우를 봐도 그들중에 나라와 민족 앞에 본의 아닌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의 약점만을 꼬집고 의붓자식처럼 대하면서 멀리 배척했습니다.

민족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고 통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누구든 한품에 안아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주석님께서만이 허물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사들을 품어주시고 따뜻이 손잡아 조국통일을 위한 인생의 참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산이 커야 그늘이 큰 것처럼 도량이 큰 정치의 품은 넓기 마련입니다.

온 겨레가 **김일성**주석님의 품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품, 태양의 품이라 우러러 칭송한 건 그분께서 넓은 도량과 바다같은 포용력을 지니시고 7천만겨레에게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펼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해외의 수많은 각이한 사람들이 주석님의 품을 찾아갔던 겁니다.

김구하면 상해임시정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임정의 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완고한 민족주의의 거두인 그가 반공으로부터 연공애국의 길로 방향전환하기까지에는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체 37 (1948)년 역사적인 4월 남북연석회의가 마련되던 당시 주석님을 보좌하는 간부들속에서는 한당파, 단체간에서도 모여 앉기만 하면 싸움질만하는 이남의 민족주의정객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할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석님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셨습니다. 민족의 통일염원이 그들에게 주는 영향력을 헤아리셔서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는 민족적 양심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분열의 위기를 막고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러자면 이남의 모든 애국민주역량을 묶어세워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국이 없고, 민족이 망하면 사상이요, 주의주장이요 하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간부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김구, 김규식 등 많은 인사들이 주석님의 품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평양에 가서 주석님의 위인적 인품과 인격, 풍모에 매혹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정의 인장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던 김구씨가 주석님의 도량과 덕망,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에 얼마나 매혹되었으면 그 인장을 주석님께 바치려고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석님께서는 그 마음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 인장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위인일수록 겸손하다더니 장군님을 두고 이르는 말이었구나.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겨레의 운명,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 나가실 위대한 지도자이시다. 그분의 높은 뜻 받들어 한몸바치자.

이렇게 결심한 김구씨는 운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석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성업에 한몸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이겠습니까.

최덕신, 문익환목사, 김성남목사도 그랬고 유명, 무명의 많은 인사들이 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한몸 바쳤습니다.

최덕신하면 직감적으로 6.25전쟁때 국군 분단장으로서 이북동포들에게 총부리를 겨냥했던 사람, 고아의 신세와 같은 해외망명객이라는 인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를 주석님께서는 그에게 남아 있는 한조각의 민족적 양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넓은 품에 안으시어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높이 내세워 주셨으며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영생하는 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가 누구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한품에 안아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주석님의 그 하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사람들중에는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최홍희씨, 세계통일연합 총재 문선명씨도 있는데요.

특히 문선명씨는 **김일성**주석님의 하해같은 은정으로 *** 정주의 자기 고향을 방문하고 수십명의 친인척들과 수십년만의 뜻깊은 상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님께서는 그를 친히 만나주시고 오찬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찾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과분하기 그지없는데 주석님을 뵙고 그분의 은정까지 받아안은 문선명씨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방문하고 주석님의 접견을 받았다는 소식은 이 땅은 물론 해외교포와 국제사회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굳이 허물이 많은 문선명같은 사람의 방북을 허용했는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던 때에 주석님께서는 훗날 한 해외교포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족이 분열된 것만 해도 가슴아픈데 민족의 손으로 통일하자는 마당에서 과거를 따질 수 있는가, 잘못은 불문에 붙이고 단결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에서 그를 만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넓은 도량, 위대한 덕망을 지니신 **김일성**주석님이셨기에 겨레는 그분을 민족의 어버이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받들고 따랐던 겁니다.

대하는 흐린 물, 맑은 물 가릴 것 없이 다 받아들이듯이 주석님의 품은 대하와 같은 넓은, 위대한 품이라 하겠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게 변해도 변하지 않을뿐더러 날이 갈수록 해가 더해질수록 더해만 가는 것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우리 민족, 온 겨레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입니다.

주석님께서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오늘 겨레의 심장속에 살아계시며 영원히 민족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민중은 **김일성**주석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 나가시는 또 한분의 통일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이 실현함으로써 통일된 강산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해주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할 것입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0, 7월 3~4일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개되는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대업실현은 유리한 격변기를 맞고 있다.

통일연대를 축으로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단합하고 여기에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속속 결집함으로써 향후 통일운동을 전국적 판도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수 있는 확고한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자주, 민주, 조국통일운동에서 일어난 괄목할 거보의 진전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연대투쟁을 비롯하여 지난 2월 6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전개한 부시방한반대투쟁, ≪악의 축≫, ≪테러지원국≫망언철회, 북침전쟁연습반대 등 연대연합투쟁은 민족주체적 역량의 단결에 모든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웅변해 주었다.

오늘 이 땅의 변혁운동가들과 각계민중 앞에는 현정세발전추이에 걸맞게 통일운동대오를 부단히 확대하고 그 단결을 더욱 강화해야 할 과제가 나서고 있다.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각계층 시민, 종교단체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내에서 중추적 역량으로 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통일연대내에서 어떻게 조직적 통일을 이루고 선봉적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통일연대의 전반적 결집력과 투쟁력이 좌우된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도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한다.

단결을 첫자리에 놓고 의견상이를 뒤로 미루며 견해와 행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가해야 한다.

개별적 단체의 독자성을 운운하거나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대오의 전반적 단합에 손상을 주고 민족공동의 이익실현에 저해를 주는 일체 독선적이고 분파적 경향들을 철저히 불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통일연대를 견인하고 주도하는 기본역량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은 사회의 중간층과의 사업으로서 변혁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관건적인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된후 지난 2년간 민족민주운동진영과 각계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비등된 국민의 통일열기와 격변하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준해볼 때 아직도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연대에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속속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정견과 신앙을 달리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을 공동의 목적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각계민중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조국사랑, 겨레사랑의 단심을 공통분모로 하여 뜻과 마음을 합쳐간다면 결코 못해낼 것도 없다고 본다.

민족의 이익앞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하에서 상호간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공통점을 적극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사업하는 데서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처음부터 높은 요구를 제기하지 말고 대방의 수준과 준비정도에 걸맞게 의견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낮은 차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본질적인 높은 차원의 문제토의에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단체간 연대연합을 이루는 데서 구체적 현실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낮은 단계의 단결인 연대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높은 단계의 단결인 연합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낮은 단계의 단결인 연대의 형식을 취할 경우 끈기있는 사색과 실천으로 대방과의 신뢰와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며 상호간의 공감대를 부단히 확대해가는 과정을 통해 점차 연합에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사업을 원칙을 가지고 영활하게 운영해 나감으로써 통일운동대오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이 사업을 실천투쟁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을 실천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그 단결이 투쟁을 위한 진정한 단결이 될 수 있고 투쟁 속에서 단련된 강력한 단결이 될 수 있다.

오늘 통일운동대오의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일관하게 틀고나가야 할 투쟁사안은 반미자주, 미군철수투쟁과 민족대단합을 가로막는 대권욕에 환장이 된 이회창 친미반통일세력척결, ≪국보법≫ 철폐, ≪주적≫론철회, 파쇼악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불법화되고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이 투쟁을 조직전개함에 있어서 지난 시기 나타났던 운동의 한시적 제한성을 극복하고 일상적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소수 엘리트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운동의 한계성을 지양하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투쟁이 특정지역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남전역을 포괄하는 전국적 운동으로 승화되도록 힘써야 한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이같은 투쟁을 통하여 대중을 단련시키고 운동핵심을 키워내며 단체들 상호간의 단결과 협력을 보다 긴밀히 함으로써 통일운동대오의 투쟁력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이 땅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들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오늘의 자주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해 나섬으로써 조국통일의 밝은 내일을 하루빨리 안아와야 한다.

문영철 - 구국전선 주체91, 6월 15일

전국민이 힘을 합쳐 ≪주적론≫철회투쟁을 벌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온당치 못한 언행들을 일삼고 있어 온 국민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이 북에 대한 ≪주적론≫을 제창하며 악의에 찬 망언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그 하나의 사례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이회창은 남과 북은 상호 대치관계와 상호 교섭상대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주적≫개념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떠벌였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손잡고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방인 북을 동족으로 보지 않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체와 냉전시대의 대결관념을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원래 ≪주적≫표현은 한 민족내에서 있을 수 없는 천만부당한 것이며 또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동족사이에 반목질시하던 지난날의 낡은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오늘의 현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외세와 극우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각계에서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표현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주적론≫철회를 위한 집중투쟁기간을 선포하고 ≪주적론≫철회투쟁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이 반민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오직 대결과 불신, 분열과 전쟁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이 제창하고 있는 ≪주적론≫이야말로 대결론이고 전쟁론이며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동족사이에 불신과 반목,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전쟁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들의 ≪주적론≫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6.15공동선언도 이행해 나갈 수 없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천명한대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단합을 도모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적론≫철회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현시기 ≪주적론≫철회투쟁은 우리 민중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죠. ≪주적론≫철회투쟁에 대한 태도문제는 전쟁과 분열을 바라는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됩니다. 각계층 민중은 ≪주적론≫철회투쟁이 갖는 중요성을 똑바로 명심하고 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회창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은 미국의 비호와 두둔밑에 6.15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적론≫을 제창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주적론≫의 추악한 목적과 위험성, 그 악결과를 국민들속에 널리 알려주어 그들 모두가 ≪주적론≫철회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전국민이 힘을 합쳐 단결된 역량으로 ≪주적론≫철회투쟁을 조직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에 추종해서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이 ≪주적론≫을 주장하며 전쟁책동에 집착하고 있는 만큼 대중의 힘에 의거해서 ≪주적론≫철회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투쟁승리의 기본열쇠는 대중의 일치한 힘, 민중의 단합된 힘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 민중은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단합된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과 함께 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는 ≪주적론≫철회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주적론≫철회투쟁을 순수 ≪주적론≫****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를 제창하는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지역적 범위에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적론≫철회투쟁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차대한 투쟁인 만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이 소속과 단체, 지역에 관계없이 결집하여 반이회창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회창과 우익보수세력이 외세와의 공조하에 온갖 범죄적 책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들의 작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중은 엄청난 불행과 고통, 재난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만고역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을 더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민이 힘을 합쳐 ≪주적론≫철회투쟁을 벌이자≫, 논설을 보내드렸는데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역적들의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가 악화돼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회창역적이 절대로 대통령감투를 쓰지 못하게 해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주체91, 6월 21~24일